

# 기혼여성의 내·외적자원과 가족체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박진미(영남대 석사) · 홍상욱(영남대 교수)

현재 많은 기혼여성들은 결혼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혼의 위기를 겪고 있다. 그 원인은 결혼만족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가정 붕괴의 원인 중 하나가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는 가정을 유지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행복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부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가족의 진정한 복지를 위해서 무엇보다 결혼만족도가 높아져야 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요인별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변인인 내적자원(자아존중감, 갈등대처방식), 외적자원(연령, 학력수준, 직업유무, 소득수준, 가족형태, 결혼형태, 결혼지속연수, 종교)과 가족체계(응집성, 적응성, 의사소통)를 함께 고려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혼여성의 내적자원과 가족체계 및 결혼만족도의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기혼여성의 내·외적자원과 가족체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K도 G시에 거주하고 있는 기혼여성 252명(30대-79명, 40대-110명, 50대-63명)이며, 연구를 위한 최종 분석 자료로 설문지 252부가 이용 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9.0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뢰도를 산출하였으며,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이용한 빈도분석, 평균을 산출하였고, 상관관계(correlation analysis)와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기혼여성의 내적자원과 가족체계 및 결혼만족도의 수준은 모두 보통이상으로 나타났다. 내·외적자원과 가족체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자아존중감, 이성적 대처, 직업유무, 소득수준, 연애결혼, 가족 간 응집성, 의사소통의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내적자원으로서 자아존중감이 높고, 이성적으로 대처 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적자원으로서 직업을 가지지 않고, 소득수준이 높으며, 연애결혼을 한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체계로서 가족 간 응집성이 높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생태학적 맥락에서 크게 세 가지(내적자원, 외적자원, 가족체계)의 영역으로 분류하여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외에도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할 것이며, 심리적인 특성과 부부관계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 다각적이고 심도 깊게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을 규명함에 있어서 내·외적자원과 가족체계에 요인을 동시에 살펴 행복하고 건강한 결혼생활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 점에 의의가 있다.

\*이 포스터는 영남대학교 박진미 석사학위논문(2012)을 요약한 것입니다.